



1 순천 행동 푸조나무 (순천부읍성내 푸조나무)

- 소 재 지 : 순천시 행동 101번지
- 지정내용 : 순천시 향토문화유산



순천 행동 푸조나무는 삼성생명(주) 빌딩의 뒷쪽 휴게공간에 위치하고 있다. 옛 순천부읍 성터에 자라는 노거수로 수종은 푸조나무이며, 수고 25m, 가슴둘레 5m이며, 수령은 500년 이상으로 추정된다. 순천부읍성에서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당제와 같은 용도로는 쓰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강진 사당리, 부산 수영구 등에는 푸조 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순천 행동 푸조나무도 서식지의 역사적 의미, 수목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된다.

1 순천 옥천동 느티나무

- 소 재 지 : 순천시 옥천동 128-2
- 지정내용 : 순천시 향토문화유산



기록으로 볼 때 노거수의 역사성을 찾을 수 있어 조선시대의 역사상을 알 수 있다.

1 순천 구 남장로교회 조지와의 기념관

- 소 재 지 : 순천시 매산길 11
- 지정내용 : 등록문화재 제127호
- 시 대 : 1925년(추정)
- 규 모 : 지하 1층, 지상 2층



더불어 미군정 당시 순천지방을 관할하는 미군정의 사무소로 활용되었다.

1963년 결핵환자 진료소를 개설하고, 2000년에 한국기독교 선교역사박물관 등대선교회 창립 30주년 기념사업으로 조지와와 기념관을 박물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붕은 아연합식재를 사용하여 박공형 경사지붕에 박공형 지붕창을 사용하였으며, 창호는 단순한 모양의 수직수평의 오르내리창 두개를 붙여서 격자패턴으로 구성, 창문이 큰 경우에는 창살의 개수가 많아져 유리크기의 제조 기술적 한계 극복과 더불어 장식적인 효과를 함께 하고 있다.

지금의 조지와와 기념관은 1986년 연결통로에 의한 관리사 수평중축 당시 3층(다락)부분이 주벽으로 변경되어 건축물 활용상 수직으로 확장 변용을 가져왔으며, 1963년 이후 교육 및 집회 용도에서 의료기능이 추가되었다.

2004년 이후 2~3층 부분이 선교박물관으로 변용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으나 건축물의 활용 목적에서 본다면 기독교진료소는 지금은 소실된 안락산병원의 연장선으로, 선교박물관은 직접 교육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간접교육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어 쓰임은 다소 바뀌었으나 당초의 목적을 이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 순천팔마비 (유형문화재)

- 소 재 지 : 순천시 영동 1
- 지정번호 : 유형문화재 제76호



이 비는 한국 역사상 지방관의 선정 겸 청덕비의 효시이다. “승평자”에 기록된 팔마비 음기에 대한 기록을 보면 승평부에서는 태수가 바뀌어 돌아가면 태수에게는 말 8필을 주고 부사(副使)에게는 7필을, 그리고 법조에게는 6필을 주되 마음대로 고르게 하였다. 석(碑)이 갈려 갈에 있어서도 음인 등이 말을 바치고 좋은 것 고르기를 청하니 석이 우으며 말하기를 “능히 서울에만 이르면 죽할 것을 말을 골라서 무엇하겠는가.” 라고하며 집에 돌아간 뒤 그말 들을 되돌려 보내니 고을사람들이 받지 않으므로 석이 말하기를 “내가 그대들 고을에 수령으로 가서 말이 망아지를 낳은것을 데리고 온 것도 이는 나의 탐욕이 된다. 그대들이 지금 받지 않는 것은 아마 내가 탐을 내서 걸으랴만 사양하는 줄로 알고 그러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고 그 망아지까지(모두 9필)아울러 돌려주니 이로부터 증마(贈馬)의 폐단이 마침내 끊어졌으므로 고을 사람들이 그 덕을 칭송하여 비석을 세우고 팔마비라 이름하였다.

1 순천 매산중학교 매산관

- 소 재 지 : 순천시 매산길 23
- 지정번호 : 등록문화재 제123호
- 시 대 : 1930년
- 규 모 : 지하 1층, 지상 2층



매산관은 정면은 남향으로 내고 지금의 운동장 쪽으로 향하고 있다.

확인된 바로는 외부 변경으로는 1965년 인접에 있는 구레인관 신축 당시 현재 매산관 1층 좌측 부출입구와 2층 복도를 구레인관과 각 연결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1970년 이후 당초 현관부분이 철거되고 청문역시 목재 오르내

리창에서 현재의 PVC 계창호로 바뀌었다. 현재의 지붕바깥재는 2002년 매산관 배면에 위치한 창조관 건축공사와 함께 변경되었다. 내산관 배부의 변경으로는 현재 전자도서관의 내부 측면 벽이 가벽에서 고정벽으로 변경되었고, 현재 2층의 창고와 문서고 역시 1층 강당과 함께 사용되었던 공간에서 현재 분리되었다. 또한 전자도서관의 가운데 기둥은 전자도서관으로 변용다시 지붕트러스의 처짐이 있어 보완한 것이다. 1층의 당초 현관부분이 교실로 변용된 부분의 철재 원형기둥으로 보강된 것은 1980년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자세한 기록은 없다.

1 순천 구 선교사 프레스턴 가옥

- 소 재 지 : 순천시 매산길 43
- 지정번호 : 등록문화재 제126호
- 시 대 : 1913년



이 건물은 순천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한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프레스턴의 사택으로 건립되었으나, 지금은 매산여고의 아학실로 사용되고 있다. 화강석으로 외벽을 쌓고 한식기와를 얹은 한양 절충식의 형태와 건물의 폭과 높이를 거의 1:1로 구성한 것은 순천 및 광주 지역의 선교사 주택 건축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1900년

1 옥천서원

- 소 재 지 : 순천시 임청대길 18
- 지정내용 : 문화재자료 제4호



1498년(연산군 4) 무오사화 때 희생된 한원당 김광필(1454~1504)을 추모하는 서원이다. 김광필은 조선 전기의 학자로 어려서부터 김종직에게 학문을 배웠는데, 후에 조선 오현(五賢)의 한 사람으로 불렸으며, 죽은 뒤에는 우의정의 직함을 받기도 하였다. 1564(명종 19)에 부사 이정이 처음 세웠고, 1568(선조 1)에 순천부사 김계의 상소로 전라도에서는 처음으로 ‘옥천서원’이라는 사액을 받았다. 한때 화재로 불탄 것을 1928년 유림들이 다시 지어 오늘에 이른다. 건물 배치는 경현문을 들어서면 강당인 집의당, 내삼문 그리고 사당인 옥천사가 있다. 사당은 앞면 3칸·옆면 1칸 반 규모이며 앞면에 툇바루를 깔아 개방하였다.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사람 인(人)자 모양인 맞배지붕으로 꾸었다. 강당은 앞면 3칸·옆면 2칸 규모로 가운데는 대청 마루를 깔고 양쪽 문에는 온돌방을 놓았으며 지붕은 맞배지붕이다.

1 순천 옥천서원 묘정비

- 소 재 지 : 순천시 임청대길 18
- 지정내용 : 순천시 향토문화유산
- 건립시기 : 1760년(영조 36)
- 크 기 : 높이 178cm, 너비 80cm, 두께 22.5cm



순천옥천서원내 묘정비는 1760년(영조 36)에 건립되었다. 비의 전자는 유척기가 썼고, 비문은 김원행이 찬하여, 홍봉조가 서하였다. 비문의 내용은 한원당 김광필(1454 ~ 1504)이 무오사화 때 평안도에서 순천부에 이배 되었다가 1504년 현지에서 갑자사화를 당해 사약을 받기까지 5년 동안 향중에 끼친 그의 학무덕 영향이 컸다는 것과, 옥천서원이 호남의 사림정신 기지로서 갖는 역사적 위치가 매우 중요한 점을 역설하고 있는 금석문이다. 조선 후기 사액서원의 성격과 옥천서원의 위상을 뒷받침하는 자료로서 중요한 역사유산으로 평가되며, 특히 비문의 찬자인 김원행(1702 ~ 1772, 영조대의 정통성리학자), 전자를 쓴 유척기(1691 ~ 1767, 영의정을 지낸 금석학자이자 명필), 비문의 서자인 홍봉조(1680 ~ 1760, 강원관찰사를 지낸 영조대 명필) 모두 당대 최고의 유학자이자 명필들이란 점에서 금석문의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평가된다.

1 순천기독교역사박물관

- 소재지 : 순천시 매산길 61
- 시설현황 : 공립박물관(등록번호 전남-제32호)



종업까지의 호남동부권 지역의 생활 모습을 유추할 수 있는 유물,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1 순천향교

- 소 재 지 : 순천시 향교길 60
- 지정내용 :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27호
- 지 정 일 : 1985년 2월 25일



(태종 7)에 성동리에 세웠으나, 1550년에 옮겼다. 임진왜란 때 불타 없어진 것을 1801년(순조 1)에 현재의 위치에 다시 지었다.

순천향교 이진기록

- 1407년(태종 7) 순천성(순천읍성) 동쪽에 건립(城東七里)
- 1550년(명종 5) 순천성(순천읍성) 서쪽으로 이진(城西五里移建)
- 1610년(인조 2) 옛자리 북쪽변에 이진(城西舊址北邊移建)
- 1780년(정조 4) 순천성 남쪽 흥내동에 이진(城南十里溝內同移建)
- 1801년(순조원년) 순천성 서쪽 금곡동에 이진(城西金谷洞移建)

대성전을 중심으로 한 제사공간과 명륜당을 중심으로 하는 배움의 공간이 경사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외삼문과 명륜당은 앞쪽에 내삼문과 대성전은 뒤쪽에 일직선으로 놓여 있어 향교의 일반적 배치형식인 전학후묘의 방식을 따르고 있다. 대성전은 정면 5칸, 측면 3칸의 맞배지붕 겹처마 건물로, 전퇴간(前退間의 뜰창방(昌枋) 위로는 화반(花盤)을 놓았다. 대성전 좌우에는 동재(東齋)·서재(西齋)가 있는데, 동재는 양반들이 거처하던 곳이며 서재는 서류를 두었던 곳이다.

주건물 이외에도 유사실(有司室), 풍화루(風化樓), 제기고(祭器庫) 등이 있어 조선시대 향교배치형식(鄉校配置形式)을 엿볼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된다.

1 순천 임청대

- 소 재 지 : 순천시 임청대길 18
- 지정내용 :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77호
- 크 기 : 높이 133cm, 너비 99cm, 두께 2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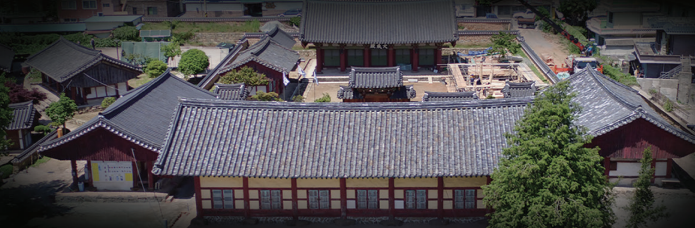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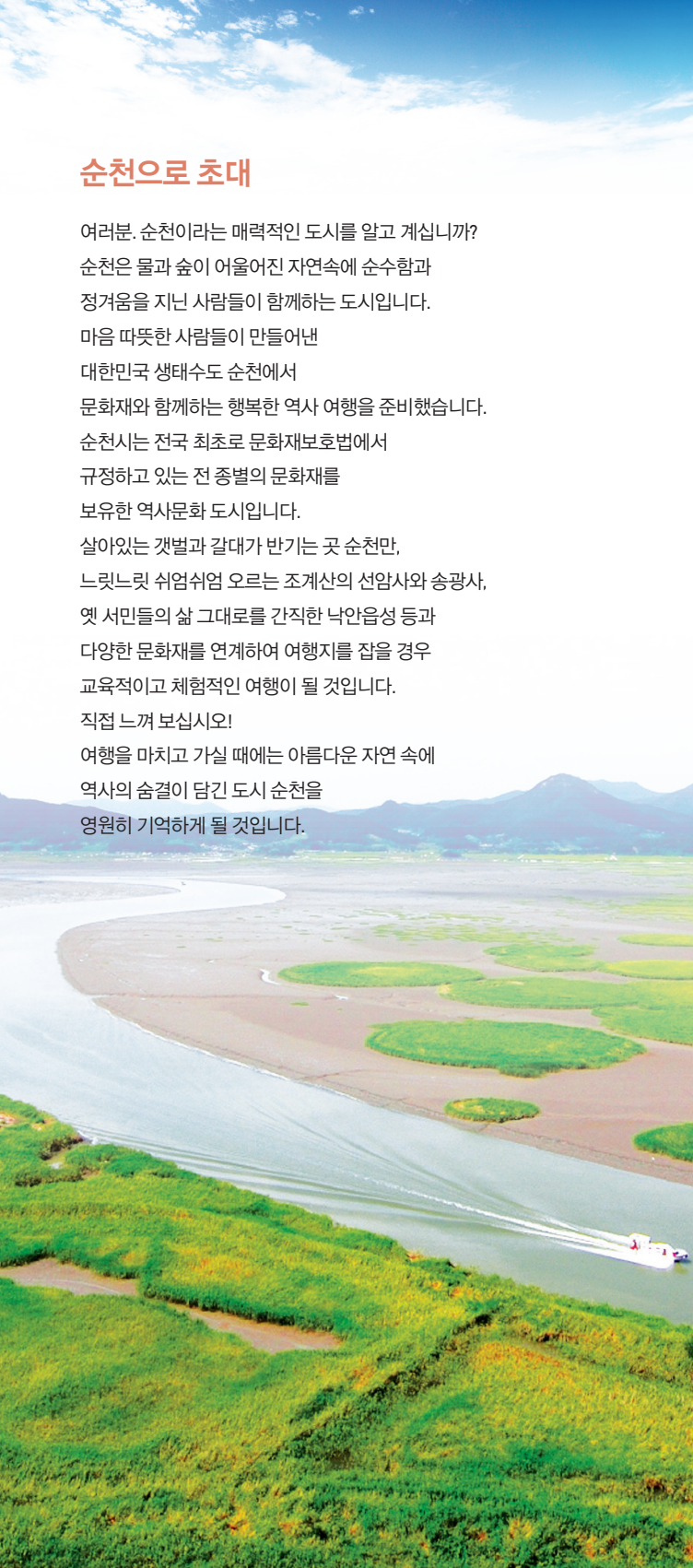
세운 일을 맡은 사람은 배숙이었다. 비의 건립 동기는 비의 뒷면에 새겨 있다. 조위(曹偉)가 순천에 유배되어 이곳 임청대 부근에서 현지의 서류들과 강론하였는데, 1년 후 김광필이 다시 순천에 유배되어 오자 동문수학이었던 두 인물이 유배지에서 다시 만나 옛정을 나누며 교유했던 곳이란 점에서 비롯된다. 그뒤 순천부사 이정(李諲 : 1512~1571)이 이를 알고 양현(兩賢)을 추모하기 위해 「임청대기」를 짓고, 이를 비석에 새기고자 하였다. 그러나 석질이 좋지 않아 「임청대기」의 내용을 모두 새기지 못하고 간단하게 그 내용만을 현 비석의 뒷면에 음각하게 되었다고 쓰여 있다.



달빛아래 걸으며 즐기는 문화재 야간관광!
순천시 천년의 역사를 밤에 즐겨보자!

2016.8.12(금) ~ 8.14(일) 18시 ~ 22시
순천문화의거리 일원





순천으로 초대

여러분. 순천이라는 매력적인 도시를 알고 계십니까?

순천은 물과 숲이 어우러진 자연속에 순수함과 정겨움을 지닌 사람들이 함께하는 도시입니다.

마음 따뜻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에서

문화재와 함께하는 행복한 역사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순천시는 전국 최초로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 종별의 문화재를

보유한 역사문화 도시입니다.

살아있는 갯벌과 갈대가 반기는 곳 순천만,

느릿느릿 쉬엄쉬엄 오르는 조계산의 선암사와 송광사,

옛 서민들의 삶 그대로를 간직한 낙안읍성 등과

다양한 문화재를 연계하여 여행지를 잡을 경우

교육적이고 체험적인 여행이 될 것입니다.

직접 느껴 보십시오!

여행을 마치고 가실 때에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

역사의 숨결이 담긴 도시 순천을

영원히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생태보고 순천만(국가지정 명승)

순천만은 갈대밭과 칠면초 군락지, 갯벌 등 염습지의 원형이 온전히 보존된 대표적인 생명의 땅이다.

저녁이면 붉게 물든 노을과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은 경치가 펼쳐진다.

갈꽃이 노을빛으로 물들면 물기머금은 갯벌은 황금빛으로 반짝이고, 칠면초, 군락은 해풍에 붉은 파도를 탄다.



순천만으로 흘러드는 동천



갈대밭을 거니는 사람들



푸르른 순천만의 갈대밭을 도화지에 담다.



순천만 흑두루미



한 폭의 그림과도 같은 '순천만 일몰'

손으로 잡을 수 없으면서도 그것은 뚜렷이 존재했고 사람들을 둘러썬

먼 곳에 있는 것으로부터 사람들을 떼어놓았다.

안개, 무진의 아침에 사람들이 만나는 안개, 사람들로 하여금 해를, 바람을

간절히 부르짖는 무진의 안개, 그것이 무진의 명산물이 아닐 수 있을까!

- 김승옥의 '무진기행' 중에서 -



노을에 물든 갈대밭



순천만 사랑 걷기



재미있는 흙공예 체험



순천만 갈대꽃



홍산전망대와 순천만



순천만의 고요함

순천만은 넓은 갯벌과 갈대밭으로 이루어진 세계적인 연안 습지로 산과 들, 갈대, 염습지 등이 함께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한다.

조계산 송광사

송광사는 신라말기 헤린 선사가 터를 잡고

산 이름을 '송광', 절 이름을 '길상'이라하여 창건하였다.



송광(松廣)의 세가지 전설

- 18분의 큰 스님이 나서서 가르침을 널리 펼침.
- 보조국사가 정혜결사를 옮기기 위해 터를 잡을때 모후산에서 나무로 깎은 솔개를 날렸더니 지금의 국사전 뒷등에 떨어져 터를 이곳에 잡았다고 함. 이 전설을 토대로 송광의 뜻을 솔갱이라 하여 송광사를 솔갱이 절이라고 함.
- 산에 소나무가 많아 '솔매'라 불렸고 그에 유래해서 송광산 이라했으며 산이름이 절이름으로 됨.



송광사 보조국사감로탑 (유형문화재)

이 부도는 송광사에서 정혜결사를 일으킨 보조국사의 부도이다. 원구형의 탑신 등이 특이하다.



송광사 국사전 (국보)

승보사찰인 송광사는 보조국사를 비롯하여 16국사를 배출하였는데, 국사전은 16국사의 영정을 모신 전각이다. 주심포 맞배지붕에 우물천정이며 내부 대들보에 그려진 용은 금방이라도 승천할 기세다.

조계산 선암사

사찰건축의 아름다움, 자연과 인공의 조화를 느낄 수 있어

산사의 미학이 숨겨진 곳이다.

선암사의 삼보 (철불 1기, 석탑 2기, 부도 3기) 와 400년 된 뒷간, 각각의 다른 멋을 자아내는 연못, 6백년 이상된 꽃나무를 볼 수 있다.



선암사 대웅전 법당



선암사 뒤뜰에 자리한 야생 차밭



선거북등 아래 연못 삼인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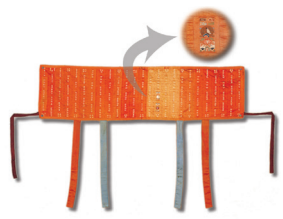


선암사 승선교 (보물)

세상의 바깥으로 비껴 나있는 고요한 길의 끝 자락에 승선교가 있다. 천년 고찰의 단아함을 간직하고 있는 선암사에 이르기 위해 조성한 무지개(홍예)다리이다. 승선교 아래로 내려가 홍예 사이로 강선루를 올라다 보면 자연과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건축물의 조화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한다.

선암사 소장 가사 탁의 (중요민속 문화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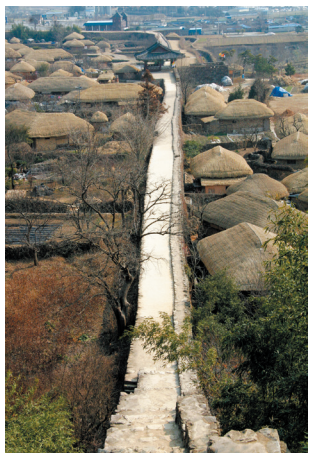
대각국사 의천이 국왕에게 하사받은 것으로 전한다. 가사의 네 모서리에는 '천(天), 왕(王)'자를 수놓고, 가운데 부분에는 해와 달을 상징하는 삼족오와 절구 찌는 토끼를 꼼꼼하게 수 놓았다.



낙안읍성 (국가지정 사적)

낙안읍성은 삼한 시대 마한땅, 백제때 파지성, 고려때 낙안군 고을터며, 조선 시대 성곽과 객사(客舍), 임경업군수비, 장터, 초가가 원형대로 보존되어 있고 성곽과 실제 생활하는 마을이 함께 국내 최초로 사적 제302호에 지정되었다.

동문을 비롯 서·남문을 통해 성안에 들어서면 사극 촬영장이 아닌가 하는 착각에 빠저든다.



흰논이 소복히 내려앉은 낙안읍성 전경



낙안 객사 (유형문화재)

임금을 상징하는 전패(殿牌)를 모셔 초하루와 보름에 예를 올리고, 사신의 숙소로도 사용하던 건물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1450년 최초 건립하였고, 두번의 중수를 거쳐 1982년 10월 수리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낙안성 김대자가옥(중요민속자료)

토석담을 쌓아 지붕을 덧달아 내어 헛간으로 사용하고, 부엌천정은 노출되어 부채살 모양으로 설치한 서까래를 볼 수 있다.